

강진군, '종이 없는' 기관단체장 회의 행정효율·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 잡아

강진청자축제·고향사랑기부제 등 군정 현안 협조 요청



강진군은 지난 1월30일 계묘년 새해 첫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회장 강진원 군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위동섭 경찰서장, 최광희 교육장, 최기정 소방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규회원 소개, 기관별 현안업무

및 협조사항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전과 달리 영상으로 참석자를 소개하고, 회의자료는 PPT를 이용해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강진원 군수가 제51회 강진청자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군정 주요 사업과 추진 전략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군수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강진청자축제를 소개하며 축제 홍보물 제작 설치, 자매결연단체 초청 등 청자축제가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캠퍼피아와 새해 소망을 담아 태우는 '화목소원 태우기', 가족과 함께 간식을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 '파이어피트9292', 눈썰매장 운영 등 계절적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해 축제 비수기인 겨울 틈새시장을 노렸다. 각 기관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공간혁신사업,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농업경영체 관리 및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 8개의 현안 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3년은 강진 백 년 발전의 첫발을 떼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가는 강진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전했다. 강진군기관단체장협의회는 지역 내 91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관별 현안 논의와 각종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강력 징수 나서

장흥군이 상·하수도 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9월 말 1억 원 이상의 수도 요금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흥군 수도요금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통화, 우편발송, 현장 방문을 통해 수도 공급 정지(단수) 예고 문 부착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왔다. 장흥군은 수도 요금 체납액 증가로 상수도 행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성실 납부한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약속 미이행자·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여성 농어업인에게 '행복 이용권' 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1인 당 20만 원(카드) 지급

완도군은 '2023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이용권)' 지급을 위해 2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여성 농어업인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20세 이상부터 75세 이하인 여성으로 올해는 1948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여성 농어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농어업 외 종합 소득 3,700

만 원 이상 ▲농어업 외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유사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는 오는 4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읍 면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행복 바우처 카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채재본부

진도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잔류농약 분석 무료

농진청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24억 확보 463종 분석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도

진도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월26일 밝혔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이 의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 463종을 분석한다. 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해 333㎡ 규모로 총 463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체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23종 39대의 분석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결과에 따라 수확시기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통 중 적발되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과학영농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내 안전먹거리 공급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